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 소래섭 지음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진 ‘강요된 명랑’의 그늘

“굳센 체력, 슬기로운 마음, 명랑운동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로 시작하는 1970·80년대 인기 프로그램 ‘명랑운동회’, 1960년대 중반 박정희 정부가 연두교사까지 발표하며 조국 근대화를 목표로 추진했던 ‘명랑한 사회 건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직후인 1981년 전남에서 추진했던 ‘범도민 생활 명랑화 운동’. 또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193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벌인 ‘대경성 명랑화 프로젝트’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명랑’ 혹은 ‘명랑화’라는 단어다. 지금은 별로 쓰이지 않지만 우리 일상에서 많이 사용했고, 어딘지 수상한 냄새를 풍기는 ‘명랑’이란 감정을 추적한 인문교양서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가 출간됐다.

저자인 소래섭 울산대 국문학부 교수는 ‘윤패하고 활발한 기분이나 감성’ 정도를 가리키는 말 정도로 알았던 ‘명랑’에 우리 역사가 대면해야 했던 식민 통치와 근대 자본주의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중심으로 근대를 읽어낸다.

먼저 저자는 조선총독부가 벌인 ‘대경성 명랑화 프로젝트’에 주목했다. 중일전쟁이 한창일 무렵 1938년 부임한 7대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명랑 정치’를 표방한다. 그는 ‘반도 청년 지도에 관해서 언행일치의 명랑한 인격을 양성할 것’이라는 지시를 직접 내리기도 했다.

학교는 이 지침에 따라 ‘모범 인간’ 양성에 앞장섰고 언론은 퇴폐적이고 저속한 유행가 대신 명랑한 유행가를 현상 공모하기도 했다.

산보를 즐기는 남자를 부추겨주는 ‘스틱 걸’, 당구장에서 손님과 함께 게임을 하거나 점수를 세는 ‘빌리어드 걸’, 전화 교환수인 ‘할로 걸’, 주유소의 ‘가솔린 걸’ 등 화려한 용모와 미소로 명랑을 꽃피우는 온갖 ‘걸’들이 출현한 것도 이때다. 하다못해 눈물도 단속하고, 키스도 금지했던 것이 이 시기이다.

조선총독부와 근대 자본주의가 강요한 명랑이란 용어의 홍수 속에서 1930년대는 행복(웃음)이 넘쳐난 시대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대다수의 지식인과 예술가, 학생과 노동자들은 우울에 젖어갔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청년 실업으로 이어져, 수많은 인텔리 지식인이 거리의 토크어로 전락했다.

이른바 ‘토크의 시대’였다. 이렇게 태어난 ‘눈치법 토크’들은 곧말에 처박히거나, 다방으로 모여들어 우울을 소비하고 초라한 자의식을 확인

했다. 당시 다방은 명나야 교양과 고민이 있는 체하는 예술가들의 집합소 역할도 토크해내고 있었다.

달리 말하면, 이 시대가 명랑의 열기로 달아올랐던 것은 더 많은 ‘포장의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나날이 늘어가는 우울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명랑이라는 포장에 겹겹이 두르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강요된 명랑’의 잔재는 ‘명랑화 운동’이나 ‘사회 명랑화 캠페인’ 등을 통해 1980년대까지도 이어졌다.

저자는 1990년대 이후 ‘명랑화’라는 말은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지만 자신의 감성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순응할 것을 강요하는 명랑화의 지상 명령은 ‘행복화’나 ‘쿨’(Cool)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한다.

그는 만화 속 명랑소년 캐릭터를 통해 ‘외로워도 슬퍼도’식 명랑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을 모색한다. 그리고 “진정한 명랑은 언제나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려는 자에게만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웅진지식하우스·1만3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했다. 당시 다방은 명나야 교양과 고민이 있는 체하는 예술가들의 집합소 역할도 토크해내고 있었다.

달리 말하면, 이 시대가 명랑의 열기로 달아올랐던 것은 더 많은 ‘포장의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나날이 늘어가는 우울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명랑이라는 포장에 겹겹이 두르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강요된 명랑’의 잔재는 ‘명랑화 운동’이나 ‘사회 명랑화 캠페인’ 등을 통해 1980년대까지도 이어졌다.

저자는 1990년대 이후 ‘명랑화’라는 말은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지만 자신의 감성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순응할 것을 강요하는 명랑화의 지상 명령은 ‘행복화’나 ‘쿨’(Cool)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한다.

그는 만화 속 명랑소년 캐릭터를 통해 ‘외로워도 슬퍼도’식 명랑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을 모색한다. 그리고 “진정한 명랑은 언제나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려는 자에게만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웅진지식하우스·1만3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유무형의 가격들, 어떻게 인간을 움직였나

‘모든 것의 가격’

에두아르도 포터 지음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에서 학생들에게 10달러짜리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1달러에 사거나 20달러짜리 기프트 카드를 8달러에 사라는 제안을 했다. 결과는 66.6% 이상의 학생이 20달러짜리를 택했다. 전자의 이득이 9달러, 후자가 12달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공짜, 후자의 경우는 7달러로 다시 제안하자 전원이 전자를 선택했다.

20달러짜리를 7달러에 사면 13달러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도, 100% 공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저널리스트 출신의 에두아르도 포터가 쓴 ‘모든 것의 가격’은 상품과 노동뿐 아니라 생명, 신앙, 행복, 미

래 등 모든 곳에 가격이 존재한다고 전한다.

유무형의 가격들이 어떻게 인간을 움직이는지, 가격이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났을 때 어떤 손실을 가져오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준다.

종교의 경우, 사람들이 시간과 돈, 노력이라는 가치를 들여 ‘보험과 사회보장이 혼합된 형태’의 종교 혜택을 받는다.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성이 노동을 통해 버는 수입이 남성보다 적기 때문에 종교에 투자해도 포기한 소득이 남성보다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영사·1만4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생의 완성도를 높이는 자기 혁명 ‘몰입’

‘몰입, 두 번째 이야기’

황농문 지음



2007년 ‘몰입’으로 자기계발서 분야에서 파란을 일으킨 황농문 서울대 교수가 그 후속편 ‘몰입, 두 번째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번 책은 학생, 직장인, 학부모, CEO 등 보다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몰입의 다양한 사례와 활용법을 담고 한 차원 더 나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전작을 업그레이드했다.

책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일을 즐기며 살 수 있을지 등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의미심장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충족시키는 모든 답이 ‘몰입’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씩 입증해 나간다.

책은 또 몰입 상태에서 왜 기적과 같은 발상이 쏟아지고 희열을 느끼는지, 시간에 쫓기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몰입을 통해 학습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몰입을 하면서 대인관계는 어떻게 유지해나가야 하는지 등 몰입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전작에서보다 더 속 시원하게 풀어준다.

기업이나 학술 현장의 사례를 담은 부록 ‘몰입을 활용한 문제해결 방법론’도 유용하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3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 건축물에 담긴 지혜와 과학

‘지혜로 지은 집, 한국 건축’

김도경 지음



서원·정자·사찰 등 한국 건축물 200여 곳을 통해 한국 건축에 담긴 지혜와 과학을 알아낸 책 ‘지혜로 지은 집, 한국 건축’이 출간됐다.

건축학과 교수이면서 목조건축 실무에 10여 년간 종사해온 김도경씨는 이론과 실재를 넘나들며 한국 건축의 구조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책은 건축물이 지어지는 순서에 따라 평면, 기단과 초석, 기둥, 가구, 공포, 지붕, 수장과 마감 순으로 풀어쓰고 그 개념과 역할 등을 세세하게 소개

한다.

책은 또 기단과 초석부터 지붕과 문살 장식까지 한국 건축물 한 채를 이루는 모든 요소를 짚으며 놀라운 구조와 과학으로 조합된 하나의 실체로서 한국 건축을 바라본다.

1200여 장의 도판을 수록해 이해를 도왔고, 언급된 전국의 건축물을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와 주소도 함께 실었다.

〈협양사·3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북유럽 디자인의 가치와 철학

‘북유럽 디자인’

안애경 지음



핀란드 국립박물관 등의 초대 큐레이터로 활동중인 안애경씨가 핀란드, 노르웨이 등 요즘 뜨는 북유럽 디자인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책 ‘북유럽 디자인’을 펴냈다.

책은 자연과 전통에 대한 존중, 일상의 중시, 창의성 추구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북유럽 디자인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주방용품, 패션, 가구 등 간결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제품들을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보

여준다.

특히 화려한 걸모습보다는 기능성을 중시하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디자인한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원, 거리를 지나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적으로 어떤 배려를 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안씨는 이미 ‘핀란드 디자인 산책’(나무수 펄스)를 통해 북유럽 디자인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시공이트·2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급변하는 사회... 흔들리는 중국인들의 삶

‘골드 보이, 에메랄드 걸’

이윤리 지음



‘천년의 기도’로 국내에 알려진 중국계 미국인 작가 이윤리(43)의 새 소설집 ‘골드 보이, 에메랄드 걸’이 번역 출간됐다.

이번 소설 역시 전작 ‘천년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흔들리는 중국인들의 삶을 해부하면서 인간의 내밀한 고통과 슬픔까지 담담한 목소리로 파고든다.

작가는 고등학생이던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겪고 베이징대를 졸업했다. 1996년 미국 아이오와대 분자생물학 박사과정으로 유학길에 오른 그는 이 대학 작가 워크숍에 참가하면서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됐다.

영어로 쓴 소설에서 작가는 문화혁명, 천안문 사태

등 중국에서 휘몰아친 소용돌이와 함께 그 시대를 지나온 세대의 운명을 묘사한다.

표제작 ‘골드 보이, 에메랄드 걸’은 고교학 교수의 어머니의 부름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온 한랭이 어머니의 여제자 시유와 맞선을 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세 사람의 관계는 비정상적이다. 한랭은 여자에게 관심이 없고 어머니와 시유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른다.

이밖에 ‘그 같은 남자’ ‘여름의 마지막 잠미’ ‘부서진 세계’ ‘그리운 옛날’ 등 총 9편의 소설이 실렸다.

2006년 국내에 소개됐다가 절판된 ‘천년의 기도’도 이번엔 다시 출간됐다.

〈학고재·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간

▲천개의 선물=지난해 출간돼 화제를 모은 농부의 아내이자 여섯 아이의 엄마인 엔 보스 캠프의 자전적 에세이. 감사의 미덕은 삶의 보편적인 지점이며 자신만의 고유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존재의 모든 조건을 긍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실천에 옮겨야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잘 짜인 구성과 호소력 있는 문체를 갖춰 문학작품처럼 읽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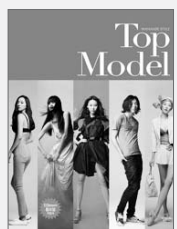
〈열림원·1만7000원〉

▲Top Model=장운주, 송경아, 한혜진, 김재욱, 지현정. 한국 모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델 5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들이 모델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모델로 섰던 무대, 토크쇼, 패션쇼, 광고 촬영 등을 소개한다. 사진작가와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 작업 현장에서 모델들을 지켜본 이들의 평가도 함께 담았다. 〈살림Life·1만5000원〉

▲왕의 눈물 1, 2, 3=‘소설 토정비결’의 작가 이재운씨가 경조 시대를 배경으로 쓴 장편역사소설. 정조는 개혁을 위해 실용학자 홍대영을 은밀히 불러 개혁을 위한 개혁 마련을 지시하고, 홍대영은 개혁을 실행할 집안으로 박지원과 그 제자들을 지목한다. 소설은 이들의 꿈과 노력, 좌절을 중심으로 조선의 운명을 그린다.

〈현문미디어·각 권 1만3000원〉

▲금융경제학사용설명서=금융경제 뿐만 아니라 기업과 회계분야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찬근 인천대 교



수가 금융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펴낸 ‘금융 종합 개설키’이다. ‘금융’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부담 없이 다가설 수 있도록 기본개념부터 역사적 발전, 현재의 양상까지 쉽게 풀어냈다. 〈부키·2만원〉

▲블루리본 서베이:전국의 레스토랑 2011 남부지역판. 중부지역판=레스토랑 평가서 ‘블루리본 서베이’(www.blueR.co.kr)의 2011년 판. 지난해 판에 250여 군데가 더 추가됐다. 전국을 대표하는 총 2466개의 맛집이 두 권에 망라되어 있으며 지난해 4월 이후에 새로 오픈한 곳과, 숨은 맛집까지 대거 포함했다.

〈들녘·각 권 1만5000원〉

▲근대의 아틀리에=대구 근대미술 산책=미술평론가 김영동씨가 석강 광석규 등 대구지역에서 활동한 근대미술작가들을 중심으로 근대미술사의 흐름을 이야기한다. 회화미술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근대와 미술사를 아우르는 지적인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했다. 주요 작가 24명의 작품 60점이 올 컬러로 수록되어 있다.

〈한티재·1만5000원〉

▲품위 있는 죽음의 조건=‘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으로 국내에 소개된 미국 호스피스 전문가의 아이라 바이오크가 인생을 품위 있게 완성하기 위한 조언을 전한다. 환자들 사를 통해 갑작스러운 질병이 안겨준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고 죽음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물푸레·1만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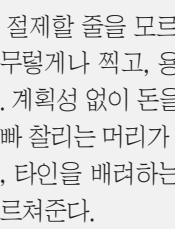
▲무지막지 공주의 모험=제15회 장비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 저학년 창작 부문 수상작. 심심함은 못 참고 뭐든 제 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공주 지우가 어느 날 파퓰러성을 벗어나 마을에 나갔다가 알게 된 친임자 ‘모자라’에 맞서 나라를 구하고자 전설 속 영웅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렸다.

〈침비·9500원〉

▲열두 살에 처음 만난 학문의 기쁨=독일의 SWR(남서독일방송공사)가 2008년 방송한 ‘어린이를 위한 대학 강의’ 시리즈 일부를 엮은 책.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호기심을 기본적인 개념은 물론, 다양한 예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우주를 날아 다른 별로 갈 수 있나요?’ ‘수가 세상을 모든 비밀을 여는 열쇠라고요?’ ‘얼굴 표정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등 10개의 강의 내용이 담겼다.

〈주니어김영사·1만원〉

▲어린이의 인생을 바꿔주는 작고 깊은 30초 동화 1-지혜편=아이들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지혜와 철학을 짧은 동화 속에 담았다. 마



음, 칭찬, 습관 등 총 3 단락으로 나눠 일상에서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생각과 지혜를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다. 짧은 글 속에 담긴 작은 철학이지만, 아이들에게 삶의 철학의 지혜는 멀리 있지 않다는 깨달음을 전해 준다.

〈처음주니어·1만원〉

▲나 그거 조금만 쥐, 응?=‘찰리와 롤라’ 시리즈의 새 이야기. 동물원에 놀러간 찰리와 롤라. 도대체 절제할 줄을 모르는 여동생 롤라는 사진을 아무렇게나 찍고, 용돈도 내키는 대로 써버린다. 계획성 없이 돈을 평평 써대는 롤라 때문에 오빠 찰리는 머리가 아프다. 자기 몫을 아껴 쓰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습관을 가르쳐준다.

〈국민서관·9500원〉

▲나의 첫 우주 그림책=우주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는 그림책. 천체, 운석, 은하수, 은하, 별, 혜성, 허블우주망원경, 국제우주정거장, 인공위성 등 현대 우주과학이 다루는 전반적인 내용을 친근한 그림과 간결한 글로 풀어 놓았다.

〈사계절·1만800원〉

어린이 책꽂이